

직업소명의식과 지각된 사회적지지가 파병 군인의 파병 불안 감소에 미치는 영향: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박 용 욱¹⁾ 설 정 훈²⁾ 손 영 우^{†)}

¹⁾연세대학교 심리학과

²⁾해군사관학교 인문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파병 군인들의 심리적 정신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것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군 파병 군인을 대상으로 직업소명의식과 지각된 사회적지지가 파병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두 변인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38명의 해군 파병 군인을 대상으로 한국판 소명척도, 다차원적 지각된 사회적지지 척도, 상태불안 검사를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직업소명의식과 지각된 사회적지지는 각각 군인들의 파병 불안을 유의미하게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소명의식과 사회적지지가 파병 불안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도 나타났다. 직업소명의식이 높은 경우 지각된 사회적지지의 정도와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낮은 불안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직업소명의식이 낮은 경우 사회적지지가 높아짐에 따라 불안수준 또한 낮아지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파병 군인들의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직업소명의식과 사회적지지의 긍정적 효과와 연구의 실무적 함의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파병 군인, 파병 불안, 직업소명의식, 지각된 사회적지지

† 교신저자 : 손영우,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E-mail : ysohn@yonsei.ac.kr

대한민국은 대만, 이스라엘 등과 함께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징병제 국가로, 특별한 예외가 아니라면 20대 청년들은 일반사회와 다른 낯설고 이질적인 군 복무 환경에 처하게 된다. 군 장병은 징집에 의한 비자발적인 입대, 사회로부터의 단절,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친밀한 관계와의 단절 등으로 인해 심리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또한 군은 일반 사회와 비교하여 물리적 또는 심리적으로 충격적이고 위협적인 사건을 경험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임무수행 중 홍수나 지진,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를 경험하거나 총기, 탄약 등의 위험물을 다루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명사고 등의 경험을 하게 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한인영, 이지영, 구승신, 2009).

군 복무 중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는 개인은 심각한 우울이나 불안, 약물남용, 음주문제 등의 부적응적 행동을 보이거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고통 받을 수 있다(박영주, 정원철, 2006). 이러한 연구결과와 함께 2006년 연천 GP 총기 난사 사건, 천안함 사건 등을 통하여 군 복무 중 특정한 사건의 경험을 통해 발생한 군인들의 심리적 어려움이 대중적으로 알려지면서 군인들의 심리적 건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뿐 아니라 파병을 통해 해외에서의 군 생활을 경험한 군인들은 파병 지역에서 직간접적으로 적과 대치하며 근무하는 환경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 파병 지역은 전투원이 직면하고 있는 생활환경이자 활동공간으로 생존을 위한 무력행사가 존재하고 있는 특수한 심리적 환경이기 때문이다(한태근, 정윤수, 2009). 대한민국은 6.25 전쟁의 당사국이자 베트남전 파

병국가였으며, 현재에도 우리나라의 안보외교상 UN 다국적군이나 PKO 평화유지군 활동을 위해 교전이 일어나는 불안정한 지역에 해외 파병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홍규덕, 2008). 이를 통해 앞으로 파병을 경험하게 될 군인의 수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으며, 군인이 파병 지역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향후 한국군의 전투력 문제와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한국 해군의 경우 2009년부터 총 25차례 이상에 걸쳐 소말리아 아덴만 지역에 약 10,000명 이상의 파병전단(이하 “청해부대”)을 파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군 파병 군인들의 심리적 건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파병 군인에 대한 연구는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겪은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국내의 파병 군인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파병 군인의 심리적 건강과 관련된 이전 연구를 살펴보면, 파병 후 시점에서 보고하는 증상위주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사후 관리와 관련된 연구만이 한정적으로 진행되었다(강성록, 김세훈, 이현엽, 2014; 김정희, 2001; 우정희, 2012; 이지영, 2007; 정효현, 2003).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파병 군인들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심리적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파병 군인들의 심리적 건강을 도모하는 것에 있다. 특히 파병 중에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적응적인 방식으로 대처하는 개인 내·외적 심리적 환경을 조성하고 스트레스에 취약한 개인의 심적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다면 그들이 파병 중이나 파병 후에 호소하는 부적응 증상 또한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불안(anxiety)은 스트레스-취약성 이론에서 보고하는 대표적인 스트레스의 취약점으로, 직무수행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과 대처,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취약요인으로 보고되며, 개인의 심리적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Connor, Vaishnavi, Davidson, Sheehan, & Sheehan, 2007). 또한 불안은 개인이 지각하는 위협 자극에 대한 인지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념이다. Mathews와 MacLeod(1985)의 연구에 따르면 불안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동일 자극에 대한 위협성을 과도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Engel(1978)은 불안상태에 놓인 사람이 갑자기 발생하는 공포 자극에 대해 편파적인 정보처리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 부적절한 스트레스 대처로 심리적 및 신체적 부적응을 경험하게 된다고 보고한다. 이처럼 개인이 불안한 상태에 놓여있을 경우 그 불안을 보상하기 위해 심리적·인지적 반응을 하게 되는데, 불안수준이 높아지면 신체적으로 긴장을 하고, 주의 집중에 실패하며, 매우 사소한 자극에도 걱정과 공포심을 갖게 된다. 이러한 반응은 개인의 대처방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직무영역에서 수행능력의 감소, 극심한 스트레스 호소, 자살사고 및 행동 등 심리적 부적응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희연, 채규만, 2010; 이경은, 하은혜, 2011). 특히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서 불안수준이 높은 군인은 전투 수행 중 과도한 신체적 각성을 느끼고, 전투상황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전투의 패배와 직결될 수 있는 부적응적 행동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부적응적 행동은 군인 개인의 전투력을 포함하여 파병 부대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파병에 대해 느끼는 불안

수준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선행 연구를 토대로 해군 청해부대 장병이 파병 지역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적응의 취약요인으로 파병에 대한 불안을 선정하고, 불안 수준을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보호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Holahan과 Moos(1991)에 따르면 개인은 직업적 영역에서 지각되는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 등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할 수 있지만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등의 개인 내적 심리적 자원과 관계적 자원이나 사회·환경적 자원과 같은 개인 외적 자원을 기반으로 스트레스원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자신의 심리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파병이 예정된 장병들이 지각하는 불안을 보호할 수 있는 개인적·환경적 보호요인을 선정하기 위해 국내·외 정신건강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군대를 포함한 직업적 영역에서 심리적 부적응을 효과적으로 완충할 수 있는 변인으로 보고되어 온 개인 내적 요인인 직업소명의식과 환경적 요인인 사회적지지를 선정하여 보호요인으로써의 주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개인의 심리적 상태는 개인적 기질 특성과 개인이 처한 환경적 특성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직업적 영역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부적응 또한 개인적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의 중하나의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 두 변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동시적·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이기는, 2006; Beehr, Bowling, Bennett, 2010). 군 정신건강과 관련된 연구 영역에서도 개인 내·외적 보호요인 독립적 효과도 중요하지만 두 요인이 효과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경우 그 보호요인으로써의 효과성이 극대화 될 수 있음을 보고한 바(설정훈, 박수현, 2015), 본 연구에서는 직업소명의식과 사회적지지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함으로써 개인 내·외적 요인의 상호작용효과 또한 검증하고자 한다.

직업소명의식(Occupational Calling)

소명의식(calling)은 역사적으로 종교적인 어원에서 비롯된 개념이다. 하지만 긍정 심리학을 바탕으로 진로 심리학, 산업 및 조직심리학, 경영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면서 현재는 종교와는 독립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소명의식이란 개인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개인적인 충만감을 느끼거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헌신을 하도록 이끄는 목적의식으로(Dik & Duffy, 2009), 자신의 일을 소명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경제적 수입이나 직무 성과와 같은 물질적 만족보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과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며, 일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것을 중요시한다(하유진, 최예은, 은혜영, 손영우, 2014; Bellah, Madsen, Sullivan, Swidler, & Tipton, 1985; Wrzesniewski, McCauley, Rozin, & Schwartz, 1997). 또한 Dik, Eldridge와 Duffy(2012)는 소명이란 한 사람의 인생에서 일이 가지는 의미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핵심요소로, 초월적 부름이나 스스로의 성찰을 통해 일과 관련한 자신의 의무와 역할을 깨닫고, 자신의 일을 통해 삶의 목적을 이루어나가는 동시에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공선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한다.

직업적 상황에서 살펴보면, 소명의식은 직

무만족, 직업 정체성과 같은 직무관련 변인을 포함하여, 삶의 의미, 삶의 만족과 같은 삶 관련 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Duffy, Allan, & Bott, 2012; Peterson, Park, Hall, & Seligman, 2009). 개인이 자신의 직업에 높은 소명의식을 가질수록 자신의 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일을 수행하며, 직업과 삶에 있어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Davidson & Caddell, 1994; Steger, Pickering, Shin, Dik, 2010).

한편, 소명의식은 자신의 업무에서 느끼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의 역할도 보고되고 있다. Hagmaier와 Abele(2012)는 소명의식이 직무에서 느끼는 소진(burnout)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Wrzesniewski와 그의 동료들(1997)의 연구에서는 소명의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우울 및 직무환경 스트레스를 낮게 보고하였으며, 직무환경 스트레스에서도 자신의 상황 및 문제해결방안을 더 명료하게 지각할 뿐 만 아니라, 회피적인 대처보다는 문제 중심적인 대처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조직과는 다른 군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들을 통해서도 소명의식의 긍정적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군 간부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된 변인과 소명의식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를 통해 학습된 무력감, 우울과 같은 부정적 요인으로부터 소명의식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유치성, 박인조, 손영우, 2016). 또한 임정인과 손영우(2016)의 연구에서는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계적 갈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소명의식이 조절효과를 가짐으로써, 갈등상황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개인의 심리적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는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높은 갈등상황에 처할지라도 높은 소명의식을 가진 개인은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소명의식은 자신의 직업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념으로,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개인의 심리적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명의식이 파병 군인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 부적응을 극복할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지각된 사회적지지(Perceived Social Support)

사회적지지(social support)란 개인이 가족이나 동료, 친구 및 자신이 생각하는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받는다고 지각하는 긍정적 심리자원을 의미한다(Zimet, Dahlem, Zimet & Farley, 1988). 특히 사회적지지는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대한 대처과정에서 개인의 외적 자원으로 작용하는 핵심변인으로, 개인의 전반적인 심리적 적응과 안녕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된다(Sippel, Pietrzak, Charney, Mayes, & Southwick, 2015).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는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어유경, 정안숙, 박수현, 2015), 직무영역에서의 스트레스(Viswesvaran, Sanchez, & Fisher, 1999),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PTSD 등의 정신병리(Brewin, Andrews, & Valentine, 2000) 등으로부터 개인의 심리적 건강을 다방면적으로 보호하며, 특히 불안장애 증상의 발병과 치료, 그 예후에 효과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역할이 보고되고 있다.

사회적지지는 군인의 심리적 건강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이주희, 김정규, 2015). 특히, 해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정훈과 박수현(2015)의 연구에 따르면 높은 사회적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경우 군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낮은 수준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한 심리적 결과라 할 수 있는 우울과 불안 역시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충분한 사회적지지를 받는 군인들은 정서조절 전략에서도 긍정적인 정서조절을 많이 하며, 부정적인 정서조절전략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사회적지지는 군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종류에 디스트레스로부터 군 장병의 심리적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복무 중 자살이나 타살목격과 같은 인명사고 혹은 자연재해나 파병 등과 같은 특수한 외상 경험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군인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가 중요한 회복요인으로 나타났다(장재현, 이기학, 2013).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해군 청해부대 장병이 파병 전 경험하는 불안에 대한 보호요인으로서 사회적지지를 선정하고 그 역할을 확인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해군 소말리아 파병부대(청해부대) 21진에 소속된 해군장병 138명을 대상으로 파병 1개월 전 시점에서 설문조사를

표 1. 연구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정보(N=138)

구분	사례 수 (n)	비율(%)
계급	병사	41 29.7
	간부	97 70.3
결혼 여부	유	34 24.6
	무	104 75.4
파병 경험	유	40 29.0
	무	98 71.0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참가한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27.30(SD=7.659)세이며, 성별은 남성이 130명(94.2%), 여성이 8명(5.8%)이었다. 이외에 조사한 연구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표 1을 통하여 제시하였다.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통해서 성별, 나이, 계급, 결혼 유무, 파병 경험 등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조사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주요 변인들의 측정을 위하여 직업소명의식 척도, 사회적지지 척도, 상태불안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들은 기존의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국방부장관 및 해군 참모총장, 청해부대 부대장의 승인을 받은 뒤 설문을 실시하였다.

직업소명의식 척도(CVQ-K)

직업소명의식은 Dik, Eldridge와 Steger(2008)가 개발한 CVQ(Calling and Vocation Questionnaire)을 바탕으로 심예린과 유성경(2011)에 의해 타당도가 검증된 한국판 소명척

도(CVQ-K)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소명척도는 초월적 부름, 목적/의미, 친사회적 지향 등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요인은 4문항씩으로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척도를 개발한 연구에서 제안한 것과 같이 1점(전혀 해당되지 않는다)에서 4점(전적으로 해당된다)의 Likert 4점 척도로 직업소명의식을 측정하였다. 한국판 소명척도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소명의식을 높게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예린과 유성경(2011)의 연구에서 보고된 본 척도의 내적 신뢰도는 .85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2로 나타났다.

다차원적 지각된 사회적지지 척도(MSPSS)

본 연구의 대상자인 청해부대 장병들이 사회적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차원적 지각된 사회적지지 척도(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Scale: MSPSS)를 사용하였다. 다차원적 지각된 사회적지지 척도는 Zimet 등(1988)이 개발하고 나기석(1997)의 연구에서 변안한 척도를 통해 측정을 실시하였다. 가족과 친구, 타인 등으로부터 받은 사회적지지를 측정하는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족, 친구, 그 외의 타인을 지지원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각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1점(아주 강한 부정)에서 7점(아주 강한 긍정)의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장병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설정훈과 박수현(2015)의 연구에서 보고된 본 척도의 내적 신뢰도는 .94, 본 연구에서는 .94로 나타났다.

상태 불안 검사(Korean Adaptation of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파병 대상자들의 파병에 대한 불안을 측정하기 위하여 Spielberg, Gorsuch와 Lushene (1970)가 개발하고 한덕웅, 이장호, 전검구와 Spielberg(1995)가 번안 및 표준화한 상태-특성 불안검사(State-Trait Anxiety Inventory) 척도를 사용하였다. 기존 상태-특성 불안척도(STAI)는 개인의 기질적 특성이 반영된 불안과 현재 상태로 인한 불안을 측정하는 두 범주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다. 두 가지의 범주 중 본 연구에서는 파병에 대한 직접적인 불안의 영향을 측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상태불안 척도만을 측정에 활용하였다. 상태불안 척도는 설문에 응답하는 시점의 응답자의 불안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곧 경험하게 될 파병에 대한 느낌을 떠올리며 각 문항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로 질문을 변경하여 연구대상자들의 파병에 대한 불안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점(전혀 해당되지 않는다)에서 4점(전적으로 해당된다)의 Likert 4점 척도, 총 20문항으로 상태불안을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의 불안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타당화 연구를 진행한 한덕웅, 이장호, 전검구와 Spielberg(1995)의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는 .88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71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의 분석에는 SPSS 23.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들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내적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alpha의 내적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던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등을 기술통계로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다음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통제변인들(성별, 파병경험, 계급, 결혼유무, 나이)의 영향력을 통제된 상태에서 직업소명의식과 지각된 사회적지지가 파병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직업소명의식과 지각된 사회적지지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측정한 주요변인들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결과를 표 2를 통해서 제시하였다. 측정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세 가지의 주요변인들 간에는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업소명의식과 지각된 사회적지지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r = .345, p < .001$), 파병에 대한 불안과 직업소명의식($r = -.432, p < .001$), 지각된 사회적지지($r = -.427, p < .001$)는 모두 부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계적 회귀분석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상태불안에 영향을

표 2. 상관관계 분석결과 ($N = 138$)

	<i>M</i>	<i>SD</i>	직업소명의식	지각된 사회적지지	파병불안
직업소명의식	33.33	10.94	-		
지각된 사회적지지	74.52	8.51	.345***	-	
파병불안	33.55	10.94	-.432***	-.427***	-

*** $p < .001$; 괄호 안은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표 3. 파병 불안에 대한 직업소명의식과 지각된 사회적지지의 상호작용효과 검증

	비표준화 계수		β	<i>t</i>	R^2	ΔR^2
	<i>B</i>	<i>SE</i>				
1단계						
계급	1.035	2.445	.043	.423		
성별	-7.734	4.090	-.166	-1.891		
결혼 유무	-4.059	3.036	-.160	-1.337	.067	-
나이	-.274	.196	-.192	-1.401		
파병경험	2.584	2.259	.107	1.144		
2단계						
직업소명의식	-3.497	.939	-.300	-3.722***	.310***	.242***
지각된 사회적지지	-3.931	.947	-.330	-4.152***		
3단계						
직업소명의식						
×	2.234	.924	.183	2.418*	.340***	.030*
지각된 사회적지지						

* $p < .05$, *** $p < .001$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통제된 상태에서 측정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1 단계에서는 통제변인으로서 파병 불안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인 성별, 나

이, 계급, 파병경험 유무, 결혼 유무 등을 투입하였으며, 2 단계에서는 직업소명의식과 지각된 사회적지지를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파병 불안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여 1 단계에 투입된 성별, 나이, 계급, 파병경험 유무, 결혼 유무는 파병

에 대한 불안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직업소명의식($\beta = -.300, p < .001$)과 지각된 사회적지지($\beta = -.330, p < .001$)는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의 불안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소명의식과 사회적지지의 상호작용효과 분석

직업소명의식과 지각된 사회적지지 두 변인의 상호작용이 파병 불안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Aiken과 West(1991)가 제안한 방법을 바탕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중 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두 독립변수인 직업소명의식과 지각된 사회적지지에 대하여 평균 중심화(mean-centering)를 실시한 뒤 두 변인의 곱셈 항을 산출하였다. 먼저 1 단계에는 성별, 계급, 결혼 유무, 파병 경험여부 등을 투입하여 통계적 통제를 실시하였다. 2 단계

로 본 연구에서 연구하고자 한 두 예측변인인 직업소명의식과 지각된 사회적지지를 동시에 투입하였으며, 3 단계에서 평균 중심화를 실시한 뒤 산출한 두 예측변인의 곱셈항을 투입하여 파병 불안에 대한 R^2 변화량의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3 단계에 투입한 평균 중심화를 실시한 두 변인의 곱셈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통해서 직업소명의식과 지각된 사회적지지의 상호작용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Delta R^2 = .030, p < .05$).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의 형태를 확인하기 위해 Aiken과 West(1991)가 제안한 분석방법에 따라 조절변인의 특정 값(-1SD, Mean, +1SD)에서 예측변인이 결과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를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도출한 회귀선을 바탕으로 그림 1과 같이 나타내었다. 그림 1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직업소명의식이 높은 경우 파병에 대한 불안을 전반적으로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직업소명의식이 낮은 경우에는 사회적지지가 높아짐에 따라 파병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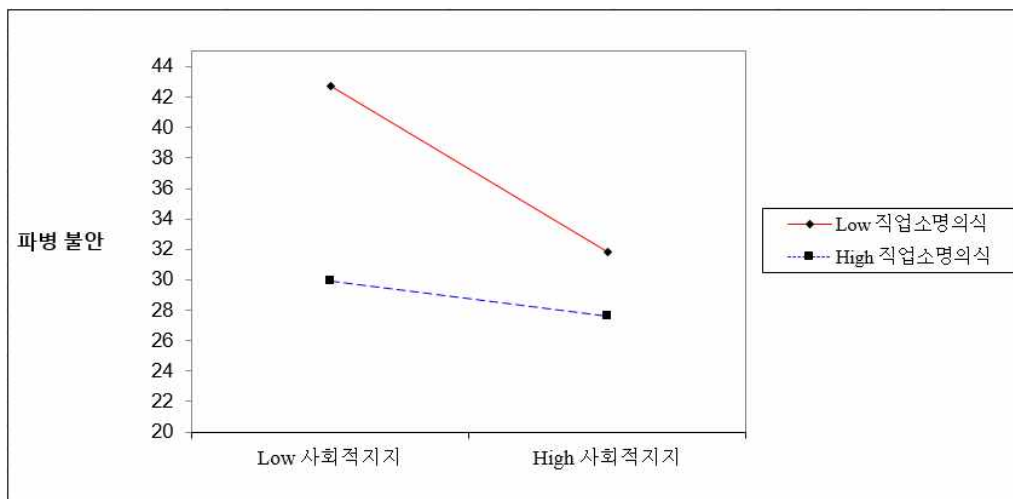


그림 1. 파병 불안에 대한 직업소명의식과 지각된 사회적지지의 상호작용효과

안을 유의미한 정도로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서론에서 설정한 가설과 동일하게 직업소명의식과 사회적지지가 모두 높은 경우에 파병에 대한 불안을 가장 낮게, 두 변인 모두가 낮은 경우에 가장 높은 불안수준을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파병 군인들의 파병에 대한 스트레스 취약요소인 파병 불안을 완화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직업소명의식과 사회적지지의 효과를 확인하는 것에 있다. 파병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이전 연구들에서 관심을 가졌던 파병 후 보고되는 증상 중심의 연구에서 나아가 파병 전 군인들이 경험하는 디스트레스를 호전시킬 수 있는 요인을 확인하고 그들의 심리적 건강의 유지와 조직의 효과성 향상시키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군 파병군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핵심변인으로 불안을 설정하고, 국내·외 군 정신건강 및 직업적 영역에서의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직업소명의식과 사회적지지를 보호요인으로 선정하여 주 효과를 검증하였으며, 또한 직업소명의식과 사회적지지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두 변인의 상호작용효과가 파병 불안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먼저 직업소명의식은 파병 불안을 줄이는 보호요인으로써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높은 직업소명의식을 가진 개인은 파병

에 대한 낮은 수준의 불안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소명의식이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부터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군 조직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유치성, 박인조, 손영우, 2016; 임정인, 손영우, 2016)들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파병 군인들이 지각하는 사회적지가 파병 불안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적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개인은 파병 불안으로부터 개인의 심리적 건강을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군인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가 심리적 부적응원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전의 여러 연구들(설정훈, 박수현, 2015; Pietrzak, Johnson, Goldstein, Malley, & Southwick, 2009)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직업적 영역에서 심리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외적 심리적 자원이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Beehr, Bowling, Bennett, 2010)에 기반하여 파병 불안에 대한 직업소명의식과 사회적지지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기존 이론과 같이 직업소명의식과 사회적지지가 모두 높은 경우 파병에 대한 불안을 가장 낮게 지각하였으며 모두 낮은 경우 파병에 대한 불안을 가장 높게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파병환경에서의 경험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개인의 심리적 부적응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직업소명의식과 사회적지지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파병 군인을 선발하고 그들의 심리적 건강을 유지하는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실무적 함의점을 지닌다. 첫째, 파병 군인의 군 생활에 대한

소명의식이 그들의 파병에 대한 불안을 유의미하게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파병 군인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직업소명의식의 정도를 반영하는 것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충분히 높은 수준의 직업소명의식을 지각하는 군인을 선발하여 파병에 대한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파병부대를 형성함으로써 파병 중 심리적 부적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 위험요소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를 통해 불안수준이 높은 군인이 전투 수행 중 과도한 신체적 각성을 느끼고, 전투상황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전투의 승패와 직결될 수 있는 부적응적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소명의식이 높고 불안 수준이 낮은 전투원을 사전에 선발하는 것은 낮은 지역에서 국내 선박들을 해적으로부터 보호하고 최적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예 전투부대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소명의식이 낮은 개인이라 할지라도 가족, 동료, 사회 등의 사회적지지원으로 부터 제공되는 양질의 사회적지지는 그들의 불안수준을 완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파병 군인 중 상대적으로 소명의식이 낮고 불안수준이 높은 군인들을 관리하는데 있어 그들의 가족이나 동료, 국가로부터 충분한 사회적지지를 지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파병 중 경험하는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취약점을 호전시킬 수 있는 실무적 함의점을 지닌다. 특히 청해부대 장병들이 파병 지역에서 근무하기 전 가족이나 동료 등 그들에게 중요한 사회적지지원으로부터 충분한 성원을 받을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파병 전 불안 수준을 낮추고 보다 적응적인 생활을 유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제한점과 본 연구 이후에 진행될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청해부대 21진에 속하여 파병을 간 인원들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모든 파병 군을 대상으로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파병 군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보다 다양한 대상을 통해서 후속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측정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은 같은 방법인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서 측정되었다. 따라서 동일한 방법으로 인해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동일방법 편향의(common method bias)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Harman의 단일요인 검증(single-factor test)를 실시한 결과, 고유치(eigenvalue)가 1 이상인 요인이 9개가 도출되었으며, 첫 번째 요인의 설명력도 총 분산의 30.05%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동일방법 편향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동일방법 편향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후속 연구들에서는 파병에 대한 불안의 측정을 심리적 요인과 더불어 물리적, 신체적 방법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기존연구들에서는 살펴보지 않은 파병 군인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써 직업소명의식과 사회적지지의 효과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중요성을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파병으로 인한 파병 군인들의 임상적 증상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한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적응적 증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심리적 보호요인으로 직업소명의식과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확인하였다는 것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참고문헌

- 강성록, 김세훈, 이현엽 (2014). 베트남전 참전 제대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대한 예측 변인.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3, 35-50.
- 김정희 (2001). 서부사하라 국군의료지원단원의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연, 채규만 (2010). 심리도식, 가족응집성-적응성, 스트레스 취약성과 자살생각의 관련성. 인지행동치료, 10, 39-55.
- 나기석 (1997). 빈곤 노인의 사회적지지 체계에 관한 연구: 강서구 영구임대 아파트 거주 생활보호 대상 노인을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영주, 정원철 (2006). 병사의 군 부적응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2, 73-93.
- 설정훈, 박수현 (2015). 해군 장병의 스트레스와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정신건강 문제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사회적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4, 553-578.
- 심예린, 유성경 (2012). 한국판 소명 척도 (CVQ-K)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 847-872.
- 어유경, 정안숙, 박수현 (2015). 여자 대학생의 일상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0, 571-589.
- 우정희 (2012). 해외파병군인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에 관한 연구. 한국테러학회보, 5, 72-103.
- 유치성, 박인조, 손영우 (2016). 군 간부들의 학습된 무력감, 우울, 조직몰입 및 직무열의의 관계: 우울의 매개효과 및 소명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2, 431-453.
- 이경은, 하은혜 (2011). 청소년 사회불안에 대한 취약성-스트레스 모델: 대인불안과 수행불안을 중심으로. 인지행동치료, 11, 39-57.
- 이기은 (2006). 연구원의 경력몰입과 직무태도 간의 관계에서 개인특성과 사회적 지원의 조절효과 검증. 대한경영학회지, 19, 1419-1440.
- 이주희, 김정규 (2015). 자기존중감 및 통제소재가 병사의 군 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 299-315.
- 이지영 (2007). 해외 파병 부대원의 스트레스 유형이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정인, 손영우 (2016). 군 초급간부의 관계갈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방어적 침묵과 소명의식의 조절된 매개효과. 인적자원관리연구, 23, 303-321.
- 장재현, & 이기학 (2013). 외상경험에 의한 심리적 어려움과 회복요인에 대한 개념도 연구: 천안함 피격사건 생존장병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4, 1145-1164.
- 정효현 (2003). 아프가니스탄 파병 한국군의 파견 명분 인식과 스트레스 반응과의 상관성 연구. 동의부대 제3진·다산부대 제1진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7,

- 99-126.
- 하유진, 최예은, 은혜영, 손영우 (2014). 한국판 다차원적 소명척도 (MCM-K) 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7, 191-220.
- 한덕웅, 전경구, 이장호, Spielberger, C., D. (1997). 한국판 STAXI 척도 개발- 분노와 혈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 60-78.
- 한인영, 이지영, 구승신 (2009). 군 병사들이 복무 중 경험한 외상적 사건과 PTSD 증상, 우울 및 사회적지지의 관계. *한국 군 사회복지학*, 2, 25-51.
- 한태근, 정윤수 (2009). PKO 활동과 전장 스트레스관리에 관한 연구-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09, 35-62.
- 홍규덕 (2008). 북한의 핵 모호성 유지에 따른 우리의 대응전략. *전략연구*, 15, 180-220.
- Aiken, L. S., West, S. G., & Reno, R. R.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Sage.
- Behr, T. A., Bowling, N. A., & Bennett, M. M. (2010). Occupational stress and failures of social support: when helping hurts.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15, 45.
- Bellah, R. N., Madsen, R., Sullivan, W. M., Swidler, A., & Tipton, S. M. (1985). *Habits of the heart*. New York: Harper & Row.
- Brewin, C. R., Andrews, B., & Valentine, J. D. (2000). Meta-analysis of risk factors for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trauma-exposed adul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8, 748-766.
- Connor, K. M., Vaishnavi, S., Davidson, J. R., Sheehan, D. V., & Sheehan, K. H. (2007). Perceived stress in anxiety disorders and the general population: A study of the Sheehan stress vulnerability scale. *Psychiatry Research*, 151, 249-254.
- Davidson, J. C., & Caddell, D. P. (1994). Religion and the meaning of work.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3, 135-147.
- Dik, B. J., & Duffy, R. D. (2009). Calling and vocation at work: Definitions and prospects for research and practice.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7, 424-450.
- Dik, B. J., Eldridge, B. M., & Duffy, R. D. (201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alling and vocation questionnaire(CVQ) and brief calling scale(BC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0, 242-263.
- Dik, B. J., Eldridge, R. D., & Steger, M. F. (2008, August). *Development of the Calling and Vocation Questionnaire (CVQ)*.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Boston, MA.
- Duffy, R. D., Allan, B. A., & Bott, E. M. (2012). Calling and life satisfaction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Investigating mediators and moderator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3, 469-479.
- Engel, G. L. (1978). Psychologic stress, vasodepressor (vasovagal) syncope, and sudden death. *Annals of Internal Medicine*, 89, 403-412.
- Hagmaier, T., & Abele A. E. (2012). The multidimensionality of calling: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a bicultural perspectiv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1, 39-51.

- Holahan, C. J., & Moos, R. H. (1991). Life stressors, personal and social resources, and depression: A 4-year structural model.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 31-38.
- Mathews, A., & MacLeod, C. (1985). Selective processing of threat cues in anxiety state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3*, 563-569.
- Peterson, C., Park, N., Hall, N., & Seligman, M. E. P. (2009). Zest and work.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30*, 161-172.
- Pietrzak, R. H., Johnson, D. C., Goldstein, M. B., Malley, J. C., & Southwick, S. M. (2009). Psychological resilience and postdeployment social support protect against traumatic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s in soldiers returning from Operations Enduring Freedom and Iraqi Freedom. *Depression and Anxiety, 26*, 745-751.
- Sippel, L., Pietrzak, R., Charney, D., Mayes, L., & Southwick, S. (2015). How does social support enhance resilience in the trauma-exposed individual? *Ecology and Society, 20*, 10.
- Spielberger, C. D., Gorsuch, R. L., & Lushene, R. E. (1970).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 Steger, M. F., Pickering, N. K., Shin, J. Y., & Dik, B. J. (2010). Calling in work: Secular or sacred?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8*, 82-96.
- Viswesvaran, C., Sanchez, J. I., & Fisher, J. (1999). The role of social support in the process of work stress: A meta-analysi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4*, 314-334.
- Wrzesniewski, A., McCauley, C., Rozin, P., & Schwartz, B. (1997). Jobs, careers, and callings: People's relations to their work.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 21-33.
- Zimet, G. D., Dahlem, N. W., Zimet, S. G., & Farley, G. K. (1988).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 30-41.

논문 투고일 : 2017. 10. 19

1 차 심사일 : 2017. 10. 23

게재 확정일 : 2018. 02. 19

Effects of Occupational Calling and Social Support on the Anxiety of Korean Navies Dispatched Overseas

YongUk Park¹⁾

Jeong Hoon Seol²⁾

Young Woo Sohn¹⁾

¹⁾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²⁾Department of Humanities, ROK Naval Academ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factors that improve psychological health of Korean navies who are dispatched overseas. Specifically, we examined the effects of the navies' occupational calling,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their interaction on anxiety. One hundred thirty-eight dispatched navies were recruited, and they completed the Korean calling scale, multifaceted social support scale, and anxiety scale-Y form. Results showed that after controlling for gender, marital status, and the previous experiences of dispatch, those who had a higher level of occupational calling and social support experienced a lower level of anxiety respectively before they were dispatched overseas. Furthermore, the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between occupational calling and social support on anxiety confirms that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anxiety is more prominent for those who have a lower level of occupational calling. We discussed the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study limitation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 navy, occupational calling, perceived social support, anxiety